

# 뜨거워지는 전남바다 '바다 숲' 조성 시급하다

### '생물다양성 보고' 전남 연안·갯벌 보존 하려면...

### 수온 상승으로 아열대 식물유입 '바다 사막화' 우려 인근 지자체 연계 '광역 통합 관리 시스템' 만들어야

철 따라 먹을 것을 주는 전남 갯벌의 연간 경제적 가치가 6조5532억원에 달해 '황금알을 낳는 닭'임이 증명됐지만 지구온난화로 남해안 해양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전문가들은 바다를 낀 인근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바다를 보존하고 이용하는 '광역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위험 = 이번 조사에서 전남지역 바다는 대부분 보전 가치가 높은 해역(해양 생태도 1등급)이거나 1등급 권역 보호를 위한 해역(2등급)이었다. 하지만 대마난류의 영향을 받아 아열대생물의 출현과 서식처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래픽 참고>

지구온난화로 해수 온도가 상승해 남해안 해양생태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난류가 흐르는 전남지역에서 그 속도가 더 빠르다는 뜻이다. 국립수산물에 따르면 남해의 표층 수온은 지난 1970년대 18.4℃였는데 200년 대에는 19.2℃로 0.8℃가량 상승했다. 해수부는 이처럼 수온상승이 지속될 경우 남해안 전역에서 아열대성 생물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07년 남해 연안에서 처음 발견된 아열대성 살피종인 해호말이 현재 고흥, 장흥, 거문도 등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제주 애월, 하구, 성산 일대의 해역에서는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인 '사막화'가 진행돼 전남 해역



### 갯벌의 경제적 가치

(단위: 억원/km2, 2012년 12월 기준)

수산물생산가능	수질정화가능	여가제공가능	서식처제공가능	재해방지기능	보존가치	합계
17.5	6.6	2.5	13.6	2.6	20.3	63.2

### 권역별 갯벌의 주요 서식 생물

권역	행정구역	갯벌생물	염생식물	물새류
경기도	경기	굴, 바지락, 동족, 낙지, 가우락, 피조개	철쭉초, 해홍나물, 가수초, 갈대, 모새달	저어새, 개리*
	충청남도	바지락, 가우락, 동족, 개랑조개, 개불	해홍나물, 철쭉초, 갯잔디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전라북도	바지락, 가우락, 동족, 개랑조개	갈대, 해홍나물, 철쭉초, 갯잔디	가황오리, 민물도요
전라	전라남도서부	굴, 낙지, 두도막, 눈썹참갯지렁이(청충), 칠게	통통미디, 해홍나물, 철쭉초, 갈대, 갯잔디	노랑부리백로*, 증부리도요
	전라남도동부	고막, 새고막, 바지락, 굴	가수초, 갈대, 철쭉초, 갯잔디	흑두루미*, 검은머리갈매기*
	경상	경상남도	바지락, 피조개, 굴, 새고막	갯잔디, 천철사초, 갈대
제주	제주도	-	순비기니우, 갈대, 갯잔디	흑로, 흰물떼새

\* 법정보호종은 ★로 표시

음으로 탐사르협약에 등록해 보존하고 있지만 인근 지자체는 앞다퉈 갯벌과 연안에 양식장을 늘리고 있다. 또 인근 어민들이 생계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갯벌을 보존하기 위한 여천 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남 지역 모든 갯벌에서 어민들이 무분별하게 수산물을 캐낸다면 훼손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밖에 없다.

전남발전연구원 김준 박사는 "인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바다 생태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 관리가 아닌 바다를 인접한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바다를 지켜나가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어민도 갯벌에서 지속 가능한 채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지방 SOC공약 3개 중 1개 '경제성 없음' 판정 한려대교·광주~완도 고속도로 포함됐는데...

# "낙후도 우선 고려해야"

### 일방적 예타조사 거부 움직임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가 제시한 27개 신규 SOC 공약 사업 중 10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9개가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이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핵심 지표는 해당 사업을 종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을 대비해 보는 '편익-비용 비율(B/C ratio)' 통상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류한다. KDI가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10개 공약(12개 사업)의 B/C 비율 평균은 0.66에 불과했다.

특히 광주·전남의 속천사업인 한려대교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등 SOC 공약 대다수가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으로 판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확실히이고 일방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보다는 지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방 SOC 공약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부 지방정부에선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부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가 제시한 27개 신규 SOC 공약 사업 중 10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9개가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이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핵심 지표는 해당 사업을 종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을 대비해 보는 '편익-비용 비율(B/C ratio)' 통상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류한다. KDI가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10개 공약(12개 사업)의 B/C 비율 평균은 0.66에 불과했다.

# 정부 '지방자치발전기획단' 발족

### 분권·행정체제개편 총괄

실천계획 이행에 대해 위원회의 점검 및 평가를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기획단의 조직은 자치기획국·지방분권·행정체제개편국 등 3개국과 실무부를 담당할 7개 과로 구성됐다. 초대 기획단장에는 오동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준비단장이 임명됐다. 오 기획단장은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개편지 원단장으로 활동해 왔다. 기획단은 위원회 추진 과제에 대한 협의와 상담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민간에서 선발한 전문위원 등으로 조직 구성을 마쳤다.

/박진기기자jkipark@kwangju.co.kr

### 전남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하려면...

# 체계적 기본조사·보존 방안 찾아야

전남도가 신안 다도해, 여수 여자만 등지의 갯벌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기본조사 작업이 먼저 해결돼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와덴해는 등재 과정에 20년간의 추진한 갯벌 모니터링 자료를 첨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갯벌의 해양생물 다양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연도별로 분석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내 갯벌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은 걸음마 단계이다. 그동안 해양·갯벌에 대한 조사는 기름 유출이나 순천만의 랍사르 습지

등류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소규모·지역별로 추진됐다. 해양수산부의 이번 조사도 지난 2006년부터 예산 102억원을 들여 동·서·남해를 나눠 권역별로 진행했고 갯벌은 2008년부터 47억원을 투입해 전남, 충남, 경기, 경상권역으로 나눠 이뤄졌다.

현재, 전남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도 기본조사가 부족한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전남 갯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설명할 자료가 없는 셈이다. 전남도 일각에서는 향후 5년 이상의 갯벌 모니터링 자료를 축적해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갯벌에 대한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 올 여름휴가는 하나투어 광주/전남 전용 상품으로 떠나세요!

#### 편안한 무안출발 전세기 상품

마카오/홍콩, 마카오 & 홍콩, 세부, 필리핀 세부

#### 광주/전남 기획상품

에어텔, 미동부 캐나다, 아나기와 뱃놀이 카멜리아, 골프 챌린지투어(국내)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공항이용료, 전정보형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의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족한 시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구로 광명동 1번지 (주)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중구구장) ■관광관련신고 Tel 1577-1233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